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박미영¹ · 김태훈²

^{1,2}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 Study on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mplex,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i Young, Park¹ · Tae Hoon, Kim²

^{1,2}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looks nursing college targeting Gangwon-Do, G Colle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4th grade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Methods** : 162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 convenience sample method were studie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 to September 1, 2014 and analysed using SAS 9.4 Program. **Results** : First, the male college student looks of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college female college students. Second, the greater the age, this higher self-esteem. Third, the higher the stress, the anxiety was lower academic career. Fourth, the higher the majors were lower appearance satisfaction Complex. The higher the stress was lower academic majors satisfaction. **Conclusion** : When developing programs to relive employments stres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lf-esteem, age,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mplex,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학생의 취업문제는 최대 관심사이다. 이는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

로 많은 간호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간호 대학생의 경우에도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제외될 수는 없다. 이는 최근 대학에 신설된 간호학과가 늘어가면서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의 증가가 관련이 될 수 있다[1]. 2018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총 19,927명으로 96.1%의 합격률을 기록

했다. 2014년 이후의 합격자 수는 매년 15,000여명에서 19,000여명으로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배출되지만 [2],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취업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간호사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88,855명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46,055명, 종합병원에서 64,238명, 병원에서 30,157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의 종합병원 이상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사 취업률 및 확보 수준은 미흡하다는 것이다[3,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 여전히 제한적이고 취업난은 지속될 것이며, 이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학업성취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때이다[5].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학년, 전공,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성숙도 등이 변수로 작용되고[7], 졸업을 앞둔 4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8].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5]. 자아존중감은 학업,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를 표현하며 친사회적인 경향을 보인다[10].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실패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비하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학업 성

취도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 [11]. 그러므로 대학생활 중 자아존중감은 학업과 취업에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면접은 취업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소이다. 면접은 서류, 시험 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용모와 태도, 의사표현력 등 잠재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취업면접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이다[12].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면접을 위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면접경험자 84%가 외모관리에 투자하겠다는 연구[13]와 같이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관리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14].

즉,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 면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

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강원지역에 있는 G시에 소재한 G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 198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이 중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응답 36부를 제외한 총 162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5]가 개발하고, Jeon[16]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외모만족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만족도 척도는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과 White[17]의 신체적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Sim[18]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모만족도 척도는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

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3) 외모콤플렉스

대학생의 외모콤플렉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1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외모콤플렉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구성은 총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하위 척도로는 '스스로 느끼는 외모콤플렉스', '타인에 의한 외모콤플렉스'의 2가지 영역이 있으며, '스스로 느끼는 외모콤플렉스'는 현재 스스로 느끼고 있는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인 외모콤플렉스 정도를 나타내고, '타인에 의한 외모콤플렉스'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을 통하여 받는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인 외모콤플렉스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취업불안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불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Jo[20]가 불안에 관한 문헌연구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국내외 척도 문항,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의 결과를 통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취업불안 척도의 문항은 취업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상태 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 10문항, 취업불안 유발원인 6문항으로 총 26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법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를 별도의 답지에 기록하도록 하는 5단계 평정법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5) 취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Hwang[21]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Kim[22]이 수정·보완한 것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척도 하위 요인은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 등 총 22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자료 수집

이 연구는 강원지역의 G시에 소재한 G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 198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이 중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응답 36부를 제외한 총 162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였고, 설문지 배포는 연구자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부탁하였다. 설문지 회수 방법은 직접회수로 이루어졌다.

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 콤플렉스, 취업불안,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이해와 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폐기함을 알려주었다.

또한 참여자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신뢰성 분석(Reliability)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상자를 G시 G대학의 간호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확대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62명으로 성별로는 남학생이 15명(9.3%), 여학생이 147명(90.8%)이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124명(76.5%), 25~29세가 30명(18.5%), 30세 이상이 8명(4.9%)으로 대부분은 20~24세이었다. 학업 성적은 3.0 미만이 3명(1.9%), 3.0 이상~4.0 미만이 134명(82.7%), 4.0 이상이 25명(15.4%)이었다. 전공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162)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9.26
	female	147	90.74
Age(years)	20~24	124	76.54
	25~29	30	18.52
	30≤	8	4.94
Academic achievement	2.9<	3	1.89
	3.0~4.0	134	82.72
	≥4.0	25	15.43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5	3.08
	Unsatisfied	11	6.79
	Moderate	53	32.72
	Satisfied	80	49.38
	Very satisfied	13	8.02
Total		162	100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명(3.1%), ‘불만족’이 11명(6.8%), ‘보통’이 53명(32.7%), ‘만족’이 80명(49.4%), ‘매우 만족’이 13명(8.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년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의 영역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외모만족도에서 남자(3.24 ± 0.44), 여자(2.89 ± 0.55)로 남자 대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여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38, p = .019$).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불안 영역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취업불안 상태에서 남자(2.55 ± 0.72), 여자(3.04 ± 0.79)로 여자 대학생의 취업불안 상태가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34, p = .021$).

한편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3.33 ± 0.48), 25~29세(3.57 ± 0.48), 30세 이상(3.80 ± 0.45)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91, p = .003$)(Table 2).

3.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적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영역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취업불안 스트레스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0 미만(3.67 ± 0.58), 3.0~4.0(2.28 ± 0.82), 4.0 이상(2.03 ± 0.91)으로 학업이 높을수록 취업불안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28, p = .006$)(Table 3).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외모콤플렉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3.19 ± 0.56), 불만족(2.64 ± 0.54), 보통(2.64 ± 0.61), 만족(2.68 ± 0.50), 매우 만족(2.30 ± 0.73)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콤플렉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48, p = .046$).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영역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2.96 ± 0.84), 불만족(3.07 ± 0.69), 보통(3.11 ± 0.68), 만족(2.84 ± 0.63), 매우 만족(2.55 ± 0.69)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45, p = .048$)(Table 4).

Table 2.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Job-seeking Anxiety and Job-seeking Stress due to Age ($N = 162$)

Variable	Categories	M	SD	F	p
Self-esteem	20~24세	3.33	0.48	5.91	.003
	25~29세	3.57	0.52		
	30 <	3.80	0.45		
Job-seeking anxiety cause situation	20~24세	3.20	0.78	1.37	.258
	25~29세	2.99	0.76		
	30 <	2.90	0.68		
Academic stress	20~24세	2.98	0.66	2.51	.084
	25~29세	2.81	0.70		
	30세 이상	2.50	0.61		
Job-seeking anxiety stress	20~24세	2.28	0.87	0.08	.925
	25~29세	2.24	0.84		
	30 <	2.17	0.78		

Table 3. Difference in the Job-Seeking Stress due to Academic Achievement

(N= 162)

Variable	Categories	M	SD	F	p
Academic achievement stress	<3.0	3.56	0.59	2.28	.106
	3.0~4.0	2.56	0.77		
	4.0>	2.53	0.98		
Family environment stress	<3.0	3.07	0.50	1.73	.181
	3.0~4.0	2.69	0.81		
	4.0>	2.39	0.92		
Academic stress	<3.0	3.27	0.46	2.28	.106
	3.0~4.0	2.96	0.66		
	4.0>	2.68	0.72		
School environment stress	<3.0	2.95	0.08	0.39	.679
	3.0~4.0	2.79	0.47		
	4.0>	2.71	0.72		
Job-seeking anxiety stress	<3.0	3.67	0.58	5.28	.006
	3.0~4.0	2.28	0.82		
	4.0<	2.03	0.91		
Total	<3.0	3.26	0.23	2.60	.078
	3.0~4.0	2.69	0.52		
	4.0>	2.52	0.73		

Table 4.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Job-seeking Anxiety and Job-seeking Stress due to Major Satisfaction

(N= 162)

Variables	Categories	M±SD	SD	F	p
Self-esteem	Very unsatisfied	3.00	0.67	1.53	.195
	Unsatisfied	3.32	0.42		
	Moderate	3.38	0.58		
	Satisfied	3.40	0.44		
	Very satisfied	3.63	0.47		
Academic stress	Very unsatisfied	2.96	0.84	2.45	.048
	Unsatisfied	3.07	0.69		
	Moderate	3.11	0.68		
	Satisfied	2.84	0.63		
	Very satisfied	2.55	0.69		
School environment stress	Very unsatisfied	3.11	0.42	1.51	.203
	Unsatisfied	2.66	0.33		
	Moderate	2.71	0.52		
	Satisfied	2.84	0.52		
	Very satisfied	2.65	0.53		
Job-seeking anxiety stress	Very unsatisfied	2.80	1.04	0.56	.689
	Unsatisfied	2.36	0.84		
	Moderate	2.26	0.80		
	Satisfied	2.23	0.90		
	Very satisfied	2.28	0.84		

4.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콤플렉스 사이에는 매우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고($r=.57, p<.001$), 외모콤플렉스가 낮은 것으로($r=-.63, p<.001$)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사이에도 매우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낮고($r=-.32, p<.001$), 취업스트레스도 낮은 것으로($r=-.35, p<.001$)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

콤플렉스,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강원도 G시 G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남자 15명과 여자 14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 첫째, 외모 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콤플렉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여준 것과 일치하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몸매 유지에 관심이 많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외모로 인한 열등감이 많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상태로 파악되었다[23]. 이러한 현상은 외모가 예뻐야 취직도 잘하고 연애도 잘해서 인생이 잘 풀린다는 뼈뿔어진 외모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풍조가 취업을 앞둔 여학생들에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취업불안 상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되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 162)

	1	2	3	4	5	6	7	8	9	10	11
1. self-esteem	1										
2. Job-seeking anxiety	-.32 ($<.001$)	1									
3. Job-seeking anxiety status	-.25 ($<.001$)	.89 ($<.001$)	1								
4. Job-seeking anxiety inductoin situation	-.33 ($<.001$)	.922 ($<.001$)	.71 ($<.001$)	1							
5. Job-seeking anxiety cause	-.26 ($<.001$)	.84 ($<.001$)	.61 ($<.001$)	.73 ($<.001$)	1						
6. Job-seeking stress	-.35 ($<.001$)	.69 ($<.001$)	.70 ($<.001$)	.62 ($<.001$)	.46 ($<.001$)	1					
7. Personality stress	-.29 (0.002)	.72 ($<.001$)	.77 ($<.001$)	.63 ($<.001$)	.47 ($<.001$)	.89 ($<.001$)	1				
8. Family environment stress	-.31 ($<.001$)	.42 ($<.001$)	.43 ($<.001$)	.44 ($<.001$)	.25 (0.001)	.79 ($<.001$)	.60 ($<.001$)	1			
9. Academic stress	-.31 ($<.001$)	.69 ($<.001$)	.62 ($<.001$)	.59 ($<.001$)	.67 ($<.001$)	.74 ($<.001$)	.59 ($<.001$)	.44 ($<.001$)	1		
10. School environment stress	-.27 (0.001)	.35 ($<.001$)	.38 ($<.001$)	.33 ($<.001$)	.18 (0.023)	.69 ($<.001$)	.46 ($<.001$)	.39 ($<.001$)	.47 ($<.001$)	1	
11. Job-seeking anxiety stress	-.18 (0.023)	.48 ($<.001$)	.55 ($<.001$)	.42 ($<.001$)	.23 (0.003)	.82 ($<.001$)	.80 ($<.001$)	.62 ($<.001$)	.42 ($<.001$)	.43 ($<.001$)	1

어 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와 취업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MBA 면접 상황에서 외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면접점수와 양의 관계를 보였고, 외모와 의사소통 능력은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외모와 의사소통 능력이 면접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아 외모가 면접 시 면접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24].

둘째, 연령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가변적이며 성장하면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거나 변화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업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복플렉스 모두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불안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의 채용 시 성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학생들의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원자들의 성적과 다른 부가적인 스펙에 의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복플렉스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복플렉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 태도라는 선행논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5]. 그러므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낙관적인 태도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고 만족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외모복플렉스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대로 낙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26]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긍정심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강원도 G시 G대학 간호학과 남녀 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복플렉스,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취업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불안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복플렉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강원도 G시 G학교 간호학과 남녀 대학생 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이 대학의 학생뿐만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 시 외모만족도,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졸업을 앞둔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미 취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 사람과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만족도가 낮고 취업불안이 높은 결과로 보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아름다운 외모가 아닌 타인에게 자신감 있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언한다.

References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Internet]. Seoul : 2017 [cited 2018 September 19].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
2.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Internet]. Seoul : 2018 [cited 2018 September 19]. Available from: <http://www.kuksiwon.or.kr/Publicity/NoticeView.aspx?SiteGnb=3&SiteLnb=1>
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A[Internet]. Seoul : 2018 [cited 2018 September 19]
4. Bae HJ. Influences of the expansion of entrance quota for nursing programs on rural · small sized hospitals[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p.1-149.
5. Lee SJ, You JH. The Medic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8;22(3):607-689.
6. Lin HS, Probst JC, Hsu YC. Depression among female psychiatric nurses in southern Taiwan: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f job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0;19(15):2342-2354.
7. Kim HJ.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ttach to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stress[dissertation]. Deagu: Daegu Haany University; 2014. p.1-53.
8.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7: 63-72, 2015.
9.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10. Baumeiser RF, Campbell JD, Krueger JI, Vohs KD.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 *Psychol Sci Public Interest*. 2003;4:1-44.
11. Park BS, Jo HN, Park BJ.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 1109-1117.
12. Jeon SH. Studying image matching in job interviews[master's thesis]. Yongin: Gang-Nam University; 2010. p.1-60.
13. Kim HR. A influence of external images of job applicants on interviews' judgement[dssertation]. Cheongyang: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2009. p.1-83.
14. Cho MK, Choi EJ, Lee JW, Lee YN, Chae JY.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3;10:141-150.
15.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6.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ublishing House*. 1974;11:109-129.
17. Mendelson, B. K., White D. R.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1993;12(2):1-10.
18. Shim KO.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uwon: Ajou University; 2006. p.1-62.
19. Kim, CS. Development of Gestalt Group Counseling Program & verification of its effects for the conquest of outward appearance complex[master's thesis]. Mokpo: Mokpo University; 2002. p.1-102.
20. Joe, GP.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8;46(2):53-75.
21. Hyeong, SW.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1998. p.1-63.
22. Kim, JJ.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Stress[master's thesis]. Gyeongna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2. p.1-86.
 23. Shin, Hyunok. The Effectors of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Complex and Body Satisfacti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Expenses: Boy and Girl Students at Middle School[master's thesis]. Seoul: EwhaWomans University; 2008. p.1-55.
 24. Jeong MG, Park JH, Kim MS. The Effects of Appearance under the Context of MBA Interviews.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011;35(2):1-23.
 25.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244-254.
 26. Noh, GO.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3):1655-1668.

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외모복플렉스,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의 논문
(Vol.2 No.3 37 46, September 2018)의 저자는

제3장 연구 부정행위 윤리규정

제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⑥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들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이에 따라 논의 후 논문의 철회하기로 결정함.